

[시티 & 피처]

■ 산업안전공단의 산업현장 점검 르포

“안전엔 타협없다”... 구석구석 체크

“시민의 안전을 119 소방대원이 지킨다면 근로자 안전은 우리가 책임진다.”

한국산업안전공단 광주본부 안전점검팀의 하루는 ‘안전을 먼저 생각한다’는 공단의 모토답게 그날 방문하는 산업현장에 대한 꼼꼼한 안전 분석으로 시작된다.

지난해 전국의 일터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하루 평균 7명·연간 2천400명. 광주에서만도 3천500여건의 재해가 발생해 3천887명이 다치고 111명이 사망했다. 이 때문에 ‘산업재해 제로’에도

지난해 광주 재해 3,500건에 111명 사망

무재해 도전... 근로자 단순질환까지 살펴

전하는 안전점검팀의 발길은 항상 조심스럽다. 한가지 더 체크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게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13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하남 산단 8번로, 지게차 3대가 분주하게 자동차부품을 나르고 있는 (주)미창 공장 앞마당에 안전점검팀 김

성배(49·건설기계기술사) 부장과 이재민(34·전기안전기사) 대리가 들어선다. 안전공단의 영문 약칭인 ‘KOSHA’가 선명한 안전모를 놀려 쓴 그들의 손에는 디지털카메라와 검사표가 들려있다.

“공장은 이상 없이 잘 돌아가

죠?” “이렇게 도와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이희성(주)미창 관리

이사가 김 부장을 반갑게 맞는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이 회사는 3년 전, 두 차례나 산업재해를 당하는 아픔을 겪었다. 요즘은 안전 규칙을 만들어 꼼꼼히 검사하고 있지만, “안전에는 타협이 없는 법”이란 생각에 자율안전 종합지원 사업을 신청했고, 이 날은 ‘예비 위험성 평가’ 날이다.

“지게차에 출입문이 있는데, 안전벨트마저 하지 않으면 너무 위험한 것 아닙니까?”

검사팀의 날카로운 지적은 공장 마당에서부터 시작한다.

여기저기서 용접 불꽃이 튀고 프



한국산업안전공단 광주지역본부 안전점검팀이 광주시 광산구 하남 산단(주)미창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업을 반복하면 근골격계 질환이 올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스트레칭 시간을 주도록 하세요.” 검사팀의 조언은 계속됐다.

검사팀은 이날 (주)미창에 중소 기업으로 최고의 안전 점수를 줬다.

김 부장은 “하남 산단 1천800여

중소기업 가운데 80% 이상이 열악

자체가 없을 정도로 소홀히 하고 있어 ‘클린사업장 조성’을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재해발생 위험이 큰 5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최고 3천만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연내에 착공한다.
공관은 1층에 기획전시실·동양화

전시실·서양화 전시실 등이 마련되고, 2층에는 수장고 및 관리사무실이 들어선다. 미술관이 될 옛 기사 공관은 1982년 부지 1만8천128m²(5천483평)에 연면적 1천739m²(528평)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다. 1층은 회의장, 2층은 연회장으로 쓰였다. 문민정부 이후 전남도립 국립공연장으로 활용됐다.

전남도는 152억여원을 받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아파트 부지로 팔았으나 시가 보증 요구를 받아들여 2004년 이 부지를 사들였다.

/김주경기자 jjnews@kwangju.co.kr

옛 전남지사 공관 주변 공원 조성

쉼터·산책로 등 시민품으로

미술관으로 개조될 옛 전남지사 공관 주변 상록공원에 쉼터·산책로·광장이 조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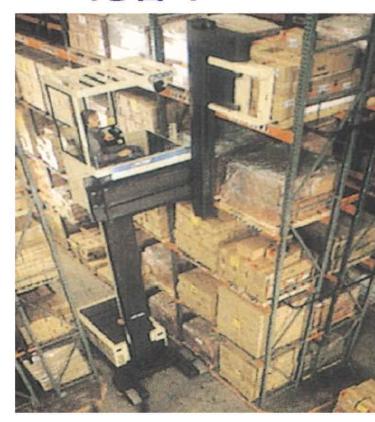
광주시는 15일 “서구 농성동 옛 전남지사 공관을 미술관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에 맞춰 주변 상록공원도 기존 수립을 활용한 휴식공간으로 만들

어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시는 4억여원을 들여 이달 중에 착공, 10월까지 산책로(270m)를 내고 잔디광장을 만드는 한편, 동백나무·청단풍·من나무·찰쪽 등 4천160그루의 나무도 심는다. <조감도>

시는 또 17억원을 들여 옛 도시사 공관을 미술관으로 개조하는 공사도

◆ 적용범위



자동창고 및 물류 배송센터 ▶

◆ 배터리 닥터,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놀라울까요?



배터리 성능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충전 불량이나 수명감소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판에 생긴 황산염 때문입니다. 배터리 닥터는 프로뱃(Probat)과 프로차지(Procharge)라는 최첨단 과학으로 황산염을 제거하고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폐배터리를 새것과 동일한 성능으로 회복시켜드립니다.

→ 기대효과

- 배터리 교체비용의 2/3 이상의 원가 절감
- 시용중인 배터리에 적용시 2배 이상의 수명연장
- 개선효과로 인한 생산성 향상
- 악성 폐기물을 배출 감소 및 재활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효과

◆ 배터리 닥터, 그럼 누구에게 가장 필요할까요?

버스, 택시, 트럭, 골프카트, 지게차, 견인차, 청소차, 운반차, 공항 및 선박, 물류센터, 자동창고, 백화점등 전동장비, 운송장비를 이용하여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1년에 얼마나 많은 배터리 교체비용이 드는지 아실 것입니다. 이런 불황기에 배터리 값만 아끼도 회사 실릴이 확립니다.

지금 배터리 닥터를 만나 보십시오!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여 비용을 획기적으로 아끼 드리겠습니다.

◆ 주요 실적 ◆

■ 현대자동차, 삼성전자(탕정공장), 한국 BASF, 호남석유화학 전동지게차 현장투입 외 108개 업체 현장투입 기동중

5D (주)배터리닥터
BATTERY DOCTOR WWW.batterydoctor.com

총판 모집
전남·전북

상담전화 02)3664-1066

‘3D 입체 파노라마’로 무등산 산행

컴퓨터 AS기사 김홍석씨

인터넷에 ‘가상투어’ 개통

요즘 무등산은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다. 나무 가지마다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고, 산벚꽃 등 벚꽃들이 자태를 뽐내느라 야단법석이다. 일상의 먼지를 헐훌 털고 새 옷을 갈아입고 있는 무등산 속으로 떠나고 싶은 때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처지라면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보자. 클릭 몇 번만으로 총면적 30.23km² 높이 1,187m의 무등산을 둘러볼 수 있는 사이트가 생겼다.

이달 초 컴퓨터 AS기사 김홍석(35·광주시 북구 중흥동)씨가 인터넷 공간에 만들어 개통한 무등산 온라인 관람사이트인 ‘무등산 VX 가상투어’(http://vxtour.com). 이곳에 가면 입석대, 서석대 등으로 오르는 주요 등산로 10개 코스를 몇 번의 클릭으로 반나절 만에 오를 수 있다.

김씨는 등산로를 따라 펼쳐지는 120곳의 무등산 풍경에 가상현실(VR·Virtual Reality) 기법을 적용했다.

이 덕분에 마우스를 클릭 할 때마다 360도 파노라마 형식으로 무등산의 속살이 눈앞에 다가온다.

‘지도보기’ 기능도 있어, 어디쯤 오르고 있는 지도 클릭 한번으로 알 수 있다.

김씨가 ‘무등산 가상투어’ 제작에 착수한 것은 지난 2005년 10월. 잘못된 인터넷 정보만 믿고 모처럼 무등산 산행에 나섰다가 길을 잃고 해맨 끝에 등산로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혼자서 만들다 보니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



3D 입체 파노라마인 VR과 일반 사진을 결합시켜 만든 무등산 가상투어(http://vxtour.com) 홈페이지. 실제 등산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제대로 된 가상투어를 즐길 수 있다.

가 아니었다. VR 가상투어 시스템도 잘 모른데다 장비비를 위한 비용도 부족했다. 김씨는 독학으로 가상투어 시스템을 익혔고 필요한 장비는 직접 만들어 가며 제작비용을 줄였다.

그는 평면인 사진을 뷰어(viewer)에서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6천800장의 사진을 일일이 붙이는 일도 전부 혼자서 했다. 그가 작업을 위해 촬영했던 사진만도 1만 컷이 넘는다.

무등산 20번 넘게 올랐다. 혼자서 1년 6개월 동안 노력한 끝에 이달 초에 사이트를 내놓을 수 있게 됐다. 넘은 일은 등산로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체워 넣는 정도.

김씨는 “지리산이나, 다도해 등 여려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곳의 가상투어 사이트 제작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부부싸움 뒤 위치 추적 요청

119 접수 휴대전화 정보 요청 절반이상이 단순 상황

광주시 소방본부에 접수된 휴대전화 위치정보 요청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단순가출 등 긴급 상황이 아닌 것

으로 접계됐다.

15일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119 종합상황실에 접수된 휴대전화 위치추적 요청 364건을 분석한 결과, 부부싸움·단순 가출 등 긴급 상황이 아닌 요청이 204건(56%)나 돼 위치추적에 이뤄지지 않았다.

자살이나 조난 등 긴급 상황으로 판단, 구조·구조대가 출동한 경우는 160건으로 이 가운데 실제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구조 건수는 8건(5%)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수색중 연락(20건)이 달았거나 미발견(26건), 자체 귀가

(5건), 위치추적 실패(96건) 등이었다.

한편 전체 요청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76건에 비해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소방본부는 자살기도 신고 등 긴급 상황을 접수하게 되면 먼저 자살기도자의 배우자 또는 친지 존·비속여부 등 적법한 요청자인지를 확인한 다음 구조 활동에 나서게 되며 하위 요청 청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부적절한 전화 한 통으로 많은 인력과 장비 긴급 출동, 정작 필요한 구조활동에 차질을 빚게 된다”며 “무작정 전화는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주경기자 jjnews@kwangju.co.kr

저소득층 주거 실태 조사

광주시는 다음달부터 3개월 동안 사회복지 수급자에 대한 주거환경실태를 조사한다.

조사에서는 사회복지수급자 현황, 영구임대아파트 운용현황 및 주거실태, 입주대기자 실태, 민간주택 미분양 가구 실태 등이다.

제3기 행정자원봉사단 모집

광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역내 대규모 행사와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활동하게 될 제3기 행정자원봉사단을 모집한다. 행정자원봉사단은 전국체전·디자인비엔날레 등 지역 내 대규모 행사를 비롯해 시립미술관·안내·상수도 모니터링·무등산 산불예방·김대중컨벤션센터 견학안내 등에서 활동하게 된다.

5월중에 발대식과 보수교육을 마친 후 부서별로 배치한다. 문의 (613-5581) /김주경기자 jjnews@kwangju.co.kr

배터리 원가절감의 획기적인 기회

품질은 100% 가격은 30%

◆ 배터리 닥터,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놀라울까요?



배터리 성능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충전 불량이나 수명감소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판에 생긴 황산염 때문입니다. 배터리 닥터는 프로뱃(Probat)과 프로차지(Procharge)라는 최첨단 과학으로 황산염을 제거하고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폐배터리를 새것과 동일한 성능으로 회복시켜드립니다.

→ 기대효과

- 배터리 교체비용의 2/3 이상의 원가 절감
- 시용중인 배터리에 적용시 2배 이상의 수명연장
- 개선효과로 인한 생산성 향상
- 악성 폐기물을 배출 감소 및 재활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효과

◆ 배터리 닥터, 그럼 누구에게 가장 필요할까요?

버스, 택시, 트럭, 골프카트, 지게차, 견인차, 청소차, 운반차, 공항 및 선박, 물류센터, 자동창고, 백화점등 전동장비, 운송장비를 이용하여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1년에 얼마나 많은 배터리 교체비용이 드는지 아실 것입니다. 이런 불황기에 배터리 값만 아끼도 회사 실립니다.

지금 배터리 닥터를 만나 보십시오!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여 비용을 획기적으로 아끼 드리겠습니다.

◆ 주요 실적 ◆